

초자연적 탄생 모티브 연구: 한민족과 튀르크계 민족들의 설화 비교를 중심으로*

이 재 정

(계명대학교 실크로드중앙아시아 연구원 연구교수)

◆ 국문초록

고대인들은 자연물을 인간에게는 없는 신이(神異)한 힘을 갖고 있는 신성한 존재로 보았음과 동시에 인간과 동일한 하나의 객체로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들과의 접촉 또는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런 관념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설화가 바로 영웅설화이다. 영웅들은 흔히 신이(神異)한 자연 대상물과의 교구(交媾)의 결과로 잉태된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런 영웅의 탄생담은 세계 각국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튀르크계 민족, 특히 카자흐족, 야쿠트족, 바쉬키르족의 영웅 설화들을 바탕으로 이 영웅들의 초자연적인 탄생 모티브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민족(韓民族)과 튀르크계 민족의 영웅 설화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탄생 모티브 연구를 통해 이들 간에는 약간의 의미적 차이가 나타나긴 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두 민족은 식물의 생산력, 수태력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수목 숭배 사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천신이 해 혹은 달의 빛으로, 또는 직접 지상으로 내려와 인간과 결합을 통해 영웅이 탄생한다는 천신숭배와 동물숭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튀르크계 민족 설화에서는 수신과의 교구가 나타나지 않고, 동물과의 교구에서도 늑대와의 교구 등이 나타나는 등 두 민족의 설화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보인다. 이런 차이점은 두 민족이 영위한 생활양식에 의한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초자연적 탄생 모티브, 이상탄생, 튀르크 영웅설화, 민족시조 설화, 이류교구, 카자흐족, 야쿠트족, 바쉬키르족

* 본 연구는 2018년도 계명대학교 연구 기금으로 이루어졌음.

1. 들어가는 말

원시적 사유에 따르면, 자유로운 지각과 의지를 소유한 자연의 대상들은 인간과 대등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없는 신비로운 능력까지 겸비한 존재이다. 더욱이 인간이 신성시 대하던 자연물이나 동·식물의 경우, 인간과 결합하여 초자연적인 출산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들의 신성성은 쉽게 멸하지 않는 존재의 영원성과 일상적인 것과 구별되는 ‘특이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자연물이나 동물, 식물은 사람에 비해 수명이 길고 하늘이나 대지, 산, 강이나 바다, 바위 등은 인간이 볼 때 쉽게 멸하지 않는 영속적인 것이다. 영속성 곧, 영원성은 코스모스의 시간성을 초월한 카오스적인 것이며, 특이성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 비코스모스적 곧, 카오스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신성시되는 자연이나 동물, 식물은 카오스를 기반으로 한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신과 마찬가지로 신이(神異)한 힘을 갖고 있다.¹⁾

신이한 자연 대상물과의 교구(交媾)의 결과로 잉태된 인물에 관한 설화는 세계 각국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초자연적 탄생 모티브는 유라시아, 중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튀르크계 민족들의 설화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고대 한민족(韓民族)과 튀르크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종족적, 역사적, 언어적, 종교적 측면의 연구를 통해 이 두 민족의 친연성을 주장하는 연구물²⁾들은 많다. 특히 언어적 유사성을 주장하는 연구물이 많은데, 이런 언어적 친연성은 인적 교류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와 함께 물질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행해졌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국내학계에서도 고대 한민족과 튀르크민족의 친연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런 특징이 구비문학에서도 반영되었을 것이다.

한민족과 튀르크계 민족³⁾들의 영웅설화 또는 건국시조, 민족시조, 창씨

1)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181-187쪽.

2) 최한우, 「중앙아시아 정치상황과 기독교 선교」, 『교회와 한국문제』 24권, 1994, 13-28쪽; 무함마드 칸수, 『세계속의 동과 서』, 문덕사, 1995; 이광호, 『이슬람과 한국의 민간신앙』, UUP, 1998.; 김영일, 「한국어와 튀르크어의 접미사 비교연구」,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23권 1호, 1987, 21-49쪽; 최한우, 「튀르크어와 한국어의 비교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13권, 1992, 251-272쪽.

시조 설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성장을 하면서 여러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이들의 탄생 배경은 일반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주로 이물과의 교구(또는 교혼)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존재인데, 그렇게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영웅적인 일들을 해내는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탄생은 한국과 튀르크 영웅 또는 그와 유사한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이다. 흔히 위대한 업적이나 신이(神異)한 행적을 남긴 인물들에 관한 신화나 전설에서 이와 같은 모티브가 나타난다. 이런 비정상적인, 초자연적인 잉태과정은 주인공의 신성성을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장치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과 튀르크계 민족의 대표 민족인 카자흐족, 야쿠트족, 바쉬키르족의 설화들을 바탕으로 영웅 탄생의 배경이 되는 이물교구 양상에 대해 비교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한국에서의 초자연적인 탄생(이상탄생) 모티브 연구는 주로 이류교구담과 야자래설화를 중심⁴⁾으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는 튀르크계 민족들의 영웅서사시, 요술담을 중심⁵⁾으로 연구되었다.

-
- 3) <http://www.turkiye.net/sota/sota.html>: 튀르크족은 몽골, 만주-통구스족과 더불어 알타이족 가운데 하나로 유라시아에 가장 많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장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이 튀르크족의 나라로 이들은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계통적으로 같은 민족이다. 뿐만 아니라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유라시아에는 중국 최대의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비롯하여 러시아에 야쿠트족, 타타르족, 바쉬키르족, 하카스족, 투바족, 알타이족 등 약 40여개의 튀르크 종족이 존재한다. (검색일: 2019.03.29.)
 - 4)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류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11집, 1990, 173-203쪽; 라인정, 「이물교구설화의 용어 정립과 유형 분류」, 『어문연구』 29권, 1997, 217-237쪽; 김정신, 『이류교혼설화연구: 인수혼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5) Жирмунский, В. М., 『Тюрк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Наука, 1974; Данилова, А. Н., 「Чудесное рождение богатырки как архаический мотив в якутских олонхо о женщинах-богатырках」, 『Филологические науки. Вопросы теории и практики』 2016, № 11 (65). Ч. 3. pp.30-33; Л а ф а р г, П., 「Миф о непорочном зачатии」,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ы』, Московский рабочий, 1926; Зеленин, Д. К., 『Культ онгонов в Сибири. Пережитки тотемизма в идеологии сибирских народов』, АН СССР, 1936; Катаров, Е. Г., 「Состав и происхождение свадебной обрядности」, 『Сборник МАЭ』, Наука, 1929; Калбаева, Г.С., 「Мотив чудесного рождения в

가장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초자연적인 탄생 모티브 유형분류로써, 김정신과 러시아 민속학자 프롭(Propp V.V.)의 연구물을 들 수 있다. 프롭은 초자연적인 모티브는 토렘(동물, 식물, 천체) 숭배, 동식물의 생식력, 최초의 인간 창조 신화에 기원과 관련된 관념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았으며, 탄생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무구수태, 과일에 의한 수태, 주술에 의한 탄생, 마신 물에 의한 수태, 사자(死者)의 환생으로서의 탄생, 난로에서 탄생, 먹은 시체에 의한 탄생, 물고기에 의한 탄생, 만들어진 사람들.⁶⁾

한국 학계에서는 인간과 교구하는 대상에 따라 이류교구 유형을 주로 인간과 식물 교구, 인간과 동물교구, 신과 인간교구, 신과 동물 교구로 구분하였으나, 김정신은 신화 속에 나타나는 영웅들의 초자연적 탄생을 그 인물의 잉태에 관여하는 성의 수에 따라 이성과의 접촉 없이 스스로 출산하는 무성생식, 이성과의 교구없이 외부의 물질과의 접촉이 원인이 되어 출산하는 감응(感應) 등의 단성(單性)생식, 양성이 결합하나 한쪽 성은 인간이 아닌 다른 류인 이류교구의 양성생식, 보이지 않는 존재인 영혼과의 교구로 탄생된 무형(영혼)생식 등으로 분류하였다.⁷⁾

튀크르계 민족들의 설화 속 주인공들은 주체들 간의 교구 행위 없이 흙이나 반죽에서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교구의 주체에 따른 형태 분류보다는 교구의 방법에 따른 김정신의 분류에 따르고자 한다. 튀크르계 민족들의 설화에서는 김정신이 분류한 무형(영혼) 생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단성생식, 양성생식을 통한 초자연적 탄생 모티브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영웅 탄생에 대한 고대 한국인의 관념과 한국인과 문화적 원형을 일정

каракалпакских народных легендах и его исторические основы», 『Вестник РУДН. Серия: Теория языка. Семантика, 2018, 9-36, pp.774-786; Мингажетдинов, М.Х. 『Мотив чудесного рождения героя в башкирских богатырских сказках』, 『Эпические жанры устного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Уфа, 1969, pp.57-74; Хайрнурова Л.А., 『Мотив рождения богатыря в русских и башкирских волшебных сказках』, 『Вестник Челяб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 (274), 2012, pp.140-142.

6) 블라지미르 프롭, 『구전문학과 현실』, 박전열 역, 교문사, 1990, 192-237쪽.

7) 김정신, 『이류교혼설화연구: 인수혼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38쪽.

부분 공유하고 있는 튀르크인들의 관념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인간의 존재 문제에 대한 튀르크인들의 사유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한민족과 튀르크 민족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초자연적 탄생담을 고찰함에 있어 유사점을 살펴보는데 비중을 두었으며, 공통적인 관념의 배경은 무엇인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물과의 교구에 관한 이야기 및 그 모티프를 수용한 설화나 고소설 등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비설화나 문헌 설화의 장르적 구분 없이 초자연적 출생 모티브가 나타나는 모든 문헌을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II. 본론

1. 단성(單性)생식

1.1. 동·식물과의 접촉, 섭취에 의한 잉태

단성 생식은 이성과의 성교 없이 단순히 외부 물질과 접촉을 통해서 수태하여 출산하는 감응탄생을 일컫는 것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설화를 흔히 감생설화라 부른다. 감생설화는 남녀의 결합이 아닌 특이한 계기나 성스러운 물체의 정기를 받아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이다.⁸⁾ 이런 설화는 단순한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저층문화민족(低層文化民族)이 가진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관찰적 상상·신앙 등이 내포된 것이다.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B.K.)는 초자연적 탄생을 생명이 탄생함에 있어서 부성의 개입 없이, 단지 정령의 세계와 여성의 신체조직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8) 감생설화 유형으로는 1) 암석·수목 등에 접촉하여 잉태하는 유형, 2) 몸에 햇빛을 받고 잉태하는 유형, 3) 해·달·별·번개 등이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잉태하는 유형, 4) 알 또는 어떤 것을 삼키고 잉태하는 유형, 5) 어떤 것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는 유형, 여러 가지 정기(精氣)를 감지(感知)하고 잉태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538&cid=40942&categoryId=32865>: (검색일: 2019.04.15.)

고대인들의 정령적 잉태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⁹⁾

단성 생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식물과의 접촉 또는 식물 섭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여성의 수태에 관여하는 식물로는 오이, 씨가 있는 과일(복숭아, 사과 등), 곡물 알갱이가 주를 이룬다.

조선국사를 처녀가 낳잖아요. <...> 이 막 빨래를 한다. **오이**가. 하나 떠 내려오드랴오. 물에, 오이가. <...> 그런께 그놈을 묵었는데 잉태가 되 아브렸어.¹⁰⁾ 두 어머니가 인제 길을 가다가 **복숭아** 하나를 얻었다 단 말야. 예. 복숭아 하나를 얻어가지구선 한 어머니는 살을 먹구 껍데기 살, 한 어머니는 인제 속을 씨를 먹었거든. 한집서는 아들을 낳았거든, 그리고 한집서는 딸을 낳구.¹¹⁾

옛날에 한 노파가 살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었다. 하루는 노파가 **보리 한 톨**을 발견하고는 먹었더니, 그 후 아이를 낳았다¹²⁾; 사냥꾼들은 <...> 부인에게 **사과** 반쪽을 주었고, 부인은 임신을 했다. 시간이 흘러 한 명은 아들은, 한 명은 딸을 낳았다.¹³⁾

임신을 야기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는 관습은 거의 모든 민족들

9) 말리노프스키 V., 『미개사회의 성과 억압 (Sex and Repression in Savage Society)』, 한원상 역, 삼성출판사, 1992, 23-24쪽: 실제로 북 뉴우기니의 트로브리안드 (Trobriand)의 원주민은 생리학적으로 부(父)는 아이들의 출생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모성만이 단독으로 혹은 전적으로 관여한다고 믿었다. 곧, 아이의 출생에 관한 남성의 역할은 전혀 없어서 아이들은 육체적인 부성을 모르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오직 사회적 정의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다정하고 자애로운 친구일 뿐 자식의 공인된 친척은 아니라는 것이다.

10) https://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6_14_FOT_20120103_LKYCMI_0002&dbkind=2&highlight (검색일: 2019.03.25.)

11) https://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2_31_FOT_19810718_SKY_KSY_0001&dbkind=2&highlight (검색일: 2019.03.25.)

12) 『Башкир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Башгосиздат, 1941, p.107: Встарину была одна старуха. Она никогда не рожала детей. Однажды старуха нашла и съела одно только ячменное зернышко; после этого у нее родилось дитя.

13) 『Башкирск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Т.3, Башк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p.385: Охотники <...> отдали половинки женам яблок, и те забеременели. Через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у одного рождается сын, у другого дочь.

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배속, 외부에 둘러싸여있는 태아를 연상시키는 열매나 부활과 재탄생을 상징하는 곡물, 그리고 남근을 연상시키는 식물들을 먹었다. 프레이저(Frazer J.G.)는 음식 섭취로 인한 초자연적인 탄생은 ‘유사는 유사를 낳는다’거나 ‘결과는 그것의 원인을 닮는다’는 ‘유사 법칙’으로 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유사의 법칙에 따른 탄생관념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식물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번식력과 다산성에 있다. 그 어떤 동물도 자식이라 할 수 있는 열매를 수천 개나 맺는 나무의 번식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나무의 이런 다산성, 번식력은 열매를 먹는 형태로 인간에게 전이된다. 열매가 여성의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여성의 뱃속에 태아가 생겨남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심지어 열매를 신체 특정 부위, 예를 들면 가슴이나 배에 가까이 대는 형태로도 번식력이 전이된다.¹⁴⁾

러시아 민속학자 지르문스키(Zhirmunskii V.M.)는 “이런 종류의 고대 이야기는 원시인들의 “처녀잉태” 관념과 관련된 것으로 모계사회 시대에 발생하였으며, 나중에 이 모티브가 영웅의 비범함을 상징하는 모티브로 서사시와 민담에 남아있게 되었다”¹⁵⁾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여성의 수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식물로 나무가 있는데, 이 또한 한민족과 튀르크계 민족들의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우선 한국의 설화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버들 유자(柳字) 유가는 어이 됐노 크면. 옛날부터요. 옛날 시조가, 혼자 있는 부인이 저 곁에(냇물에) 빨래로 가가 빨래를 하다 하이, 소변이 보고 접어가 **버들나무** 밑에 가가 소변을 보고 나이, 그 달버턴 태기가 있어가주. 그래 열달로 참 배슬러 놓이 아들이라.¹⁶⁾

수목은 대체로 수정(授精)적인 생명체로써 수태시키는 힘을 가진 남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 꼳꼳한 외형이 남근(男根)의 기립(起立)과 유사함으로 의인화가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나무가 있는 자리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성적 교합의 상징적 표현이라 하겠다.

14)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황금가지』 제1권, 박규태 역, 을유문화사, 2005, 7-149쪽.

15) Жирмунский, В.М., 『Тюрк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Наука, 1974.

16) 한국구비문학대계, 7-1, 1980, 273쪽.

야쿠트족들의 설화 속에서도 나무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오룩(가지가 풍성하고 서로 엉켜있는 나무) 안에 아기의 혼이 있을 경우, 이 혼이 오룩 안에 누워서 조용히 울면서 말하지: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데려 가려는 사람도 없어.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데». <...> 샤먼 라사가르는 «불균나흐타하 서쪽 변방에 있는 오룩에 여자아이의 혼이 있어. 거기에 빌면 자식이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을 텐데»라고 얘기하곤 했어.¹⁷⁾

위의 예는 야쿠트족들의 나무숭배 관념, 영혼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대인은 수목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였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삶과 죽음,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연속성을 지닌 불멸의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수목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목에 깃든 영혼이나 정령을 신격화하게 되었다. 이 수목신은 인간의 생활사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어졌으며,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가 그 나무에서 기도를 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나무에 기도를 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위의 예문은 얼핏 웅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빌은 단군 신화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나무속에 머물러있는 아이의 영혼을 여인에게 옮겨오게 하기위해 여인이 나무아래에서 기도를 했다는 점에서 신수(神樹)에 깃든 정령(精靈)의 힘을 빌려 아기를 낳고자 한 웅녀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프레이저는 처음에는 나무를 단순히 정령의 몸통으로 인식하다가 점차적으로 정령의 안식처로 인식하게 된 고대인의 인식의 변화는 애니미즘적 사상에서 다신론적 사상으로의 변모를 의미하기 때문에 종교 사상적으로 볼 때 중대한 발전이라고 설명하였다.¹⁸⁾

17) 『Якутские мифы』, Наука, 2004, p.305: А если в оруке есть кут ребенка, она, лежа в этом оруке, плачет потихоньку, приговаривая: «Никто за меня не беспокоится, никто не берет, я бы ребенком стала». <...> Шаман Ласагар сказывал, говорят: «Вон в том оруке, который находится на западной оконечности Булгунняхтахы, есть, оказывается, кут девочки, если бы оттуда попросить, то бездетная женщина родила бы ребенка».

18)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황금가지』 제1권, 박규태 역, 을유문화사, 2005, 306쪽.

식물에 의한 잉태 외에도 동물에 의한 잉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구전되고 있다. 이때 인간과 감응(感應)하는 존재로 물고기, 조개를 들 수 있다. 인간과 감응하는 방법은 한국 구전문학 전통에서는 주로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튀르크족의 구전문학 전통에서는 동물의 일부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원래 조씨가 여 어디서 났노 카마(하면), 아 이 처녀가 말이지 빨래 하로 저 냇가에 갔그던. 이래 빨래를 하니께, **조개비**가여 다리에 꼭 붙드래. 그래 붙디마는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그래 놓이까 아들을 낳어.¹⁹⁾ 어는 집, 인자 그 집 처녀데, 아, 이 처녀들 강가 빨래하는 기거든. 가서, 강가에 앉아 빨래를 하는데, <...> 큰 **잉어**가 그마, 우엿든(어쨌든) 탁 살을 차 빼리고 그, 가 빼렸는데. <...>, 살살 아아로 (아이를) 뺏단 말이제.²⁰⁾

옛날에 노인과 노파가 살았다. 그들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자식이 없었다. 노인은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였다. 하루는 **황금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물고기가 인간의 목소리로 말하였다. - 네가 나를 먹지 말고 머리는 암말에게, 몸통은 노파에게, 꼬리는 암캐에게 주게. <...> 노파는 즉시 임신을 하였고, 암말도 망아지를 갖게 되었으며, 암캐 또한 수태를 하였다.²¹⁾

이처럼 두 민족의 민간 설화에서 초자연적인 잉태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동물로 물고기를 들 수 있다. 이는 두 민족 모두가 물고기를 남성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물고기는 그 생김새가 남근과 비슷하다고 해서 남성, 페니스의 상징이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의 민속에서는 대를 잇

19) 한국구비문학대계, 7-1, 1980, 258쪽.

20) 한국구비문학대계, 8-3, 1981, 482쪽.

21) 『Башкирские богатырские сказки』, Башк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1, p.72: Давным- давно жили, говорят, старик со старухой. Долго они жили, а детей у них не было. Старик ловил рыбу. Однажды поймал он золотую рыбу. Заговорила рыбка человеческим голосом: - Ты меня сам не ешь, голову отдай кобыле, туловище – старухе, хвост скорми собаке. <...> Прошло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и старуха родила двух сыновей, кобыла ожеребилась двумя жеребятами, собака ощенилась двумя щенками.

기 위한 남아 출산과 다산을 기원했던 조상들이 잉어의 머리를 남근 모양으로 묘사한 문양을 볼 수 있다. 물고기의 수태력에 대한 믿음은 여러 민족에게 존재했다. 이는 물고기가 한번 알을 낳으면 수천수만의 새끼를 볼 수 있는 생식능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먹는 행위는 자손을 번식하는 능력의 전이를 상징한다.

물고기와의 접촉만으로도 여자가 임신하는 한국 설화와는 달리 바쉬키르족들의 설화는 물고기를 먹는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숭배하는 동물을 먹는 행위에 대해 프레이저는 동물의 신성과 능력을 분유(分有)하는 행위로 해석하였으며,²²⁾ 프롭은 물고기의 강한 번식력의 분유에 대한 염원과 죽은 토렘조상을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동물을 먹는 고대의 관습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다.²³⁾

튀르크계 민족들은 물고기를 동물 조상으로 숭배하였으며, 민족시조, 부족의 수호자로 여겼다. 그와 동시에 고대 튀르크계 민족들은 물고기를 죽은 자들의 왕국인 지하세계, 그리고 수중세계와 연관된 존재로 인식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세계의 존재들만이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 예를 들면 인간의 말을 하는 능력, 신화적 상징체계에서 “다른” 세상을 상징하는 색인 황금색의 몸체 등을 지닌다고 생각하였다. 즉 이런 특징을 지닌 물고기는 부족의 죽은 선조로 인식하게 되었다. 선조인 물고기를 여자가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일까?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튀르크계 민족의 영혼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여겼다. 즉,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하면서 삶을 이어간다고 믿었으며,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아기의 조상이 재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영혼관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²⁴⁾

22)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황금가지』 제2권, 박규태 역, 을유문화사, 2005, 320쪽.

23) 블라지미르 프롭, 『구전문학과 현실』, 박전열 역, 교문사, 1990.

24) 죽은 선조의 재탄생에 관한 바쉬키르족의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Башкирские богатырские сказки』, Башк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1, p.100: Давным-давно жили, говорят, в одной деревушке старик со старухой. Когда им исполнилось по семьдесят семь лет, у них родился сын. Род

옛날 아주 옛날에 아이텔 강가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지나갔으나 자식은 한 명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노인은 몹시 괴로웠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챙겨들고, 도끼를 허리에 차고 집을 떠났다. <…>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왜 그리 슬퍼하고 있느냐?” 노인이 대답했다. “이렇게 오래 살아도 아들 하나 없습시다. 내가 죽으면 내 후손이 끊기게 되니 슬퍼하고 있지요”. 산신령은 “죽는 사람이 없으니 태어나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만약 네가 아들을 꼭 갖고 싶다면 네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다.²⁵⁾

즉 물고기가 사람에게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조상이 «이» 세계로 돌아오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는 것이기에 자신이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 흡수되어 아기의 형태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거나 힘이 세다.

튀르크계 민족 설화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탄생에 관여하는 동물 조상-토템으로는 물고기 외에도 말(馬)이 있다.

어느 날 저녁 노파가 유르타의 툰직(천정을 덮는 천- 논자 주)²⁶⁾을 걷

ился он сразу же одетым. (옛날 옛날에 한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일흔 살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이미 옷을 입은 채로 태어났다.)

25) 『Башкирские богатырские сказки』, Башк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1, p.26: В давние-стародавние времена на берегу Аидели жили, говорят, старик со старухой. <…> Спохватились однажды: жизнь-то прошла и ни одним ребенком их не одарила. <…> Сильно опечалился старик. Захватив с собой лук со стрелами, топор к поясу приладив, покинул он родной дом. <…> И привиделся ему сон, явился хозяин горы и говорит: - Эй, дед, ты чего пригорюнился? - Сколько лет на свете прожил, - молвил старик, - а ни одного сына не нажил. Вот помру, и переведется мой род. Потому и горюю. На это хозяин горы отвечает: - Без чьей-то смерти никто на свет не родится. Если сыном обзаведешься, сам умрешь.

26) 유르타의 천장은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을 툰직으로 덮는다. 『몽골비사』에서 몽골의 시조모인 알랑 고아가 바로 이 구멍을 통해 들어온 달빛을 받아 칭기즈칸의 선조인 보돈차르-몽카크를 잉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툰직은 하늘과 가장 가까운 장소이면서 하늘과 왕래하는 통로를 덮는 천이다.

었다. 에르나자르가 **말 가슴살**이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 노인(에르나자르)이 기뻐하며 말했다. «빨리 이 가슴살을 삶구려!». <…> 그들은 그 고기를 배불리 먹고 건강을 되찾았다. 9개월 후에 노파가 아들을 한명 낳았다.²⁷⁾

말의 신체 일부를 먹고 아이를 낳았다는 위의 카자흐족 이야기는 그들의 토렘조상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튀르크계 민족은 말을 토렘으로 숭배하였는데, 말과 관련된 수많은 설화나 관습, 의례 등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임신한 암말이 남자 아이를 낳았다는 바쉬키르족의 설화²⁸⁾도 있을 정도로 튀르크계 민족들은 인간과 말은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다. 이런 말-조상 관념은 나중에 요술담이나 민담에서 신비한 능력(인간의 말을 하고 하늘을 날며 다른 말에 비해 엄청 빨리 달리는 등)을 지니면서 영웅의 조력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1.2. 자연 현상과의 교감을 통한 잉태

감생(感生)으로 인한 초자연적 탄생 모티브가 나타나는 설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교감의 대상으로는 동식물 외에도 태양, 달, 번개, 구름 등 자연계의 제현상(諸現像)을 들 수 있다. 이는 빛을 발하는 모든 우주자연의 물체는 신성한 위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 고대인들의 관념과 연관이 있다. 고대

27) 『Казах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Жазушы, 1980, p.5: Вот встала однажды вечером старуха с постели, открыла тундик. Посмотрел Ерназар и увидел: висит на веревочке лошадиный тостик (Тостик — грудинка). Обрадовался старик, говорит: Свари его поскорее! Сварила старуха тостик. Съели они его. насыпились, окрепли. Через девять месяцев родила старуха сына. Назвали его Тостиком. Не но дням, а по часам рос малыш.

28) 『Башкирские богатырские сказки』, Башк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1, p.121: Жил старик со старухой. Детей у них не было <…> Осталась лишь одна серая кобыла – буз бия. <…> Старики возвратились в деревню, и жеребая кобыла – с ними. На третий день бузбия родила, к удивлению всех, мальчика. (노부부가 살았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회색암말 부즈비야만 살아남았다. 노부부들이 마을 돌아갈 즈음에 임신한 암말도 그들과 함께 갔다. 셋째 날에 부즈비야가 새끼를 낳았는데, 놀랍게도 남자아이를 낳았다.)

인들은 봄과 겨울, 낮과 밤의 교체, 달의 삭망 현상에서 생명력, 재생력을 감지하였으며, 이들을 만물의 탄생, 성장의 근원이자 생명력의 원천으로 보았다. 따라서 태양과 달의 빛에는 수태력이 있다고 믿었으며 인간도 해와 달에 의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보름날 달이 비친 물을 마시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속신이 있다. 한민족과 튀르크계 민족의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감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천체로는 해와 달이 있다.

굴산사란 절에 한 여자가 우물가서 물을 길더니 **해**가 입으로 쭉 들어 갔단 말야. 그 후부터 태기가 있었어. 그래 10달 되어 가지고 딱 아를 나 니 <...>²⁹⁾; “내가 한 날 밤에 자다이 꿈에 달이 말이라 툇 떨어지디 내 입에 싹 드가디 그질로 아가 되가주고 자꾸 그래 달이 차이게로 아를 낳 았다.”³⁰⁾

치녀는 주변의 거대한 세계를 보고는 의식을 잃었다. 치녀가 기절하여 누워있을 때 천신 **텡그리의 눈길**이 치녀에게 닿았으며, 그리고 나서 그 치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³¹⁾

튀르크계 민족의 여러 설화에서 빛은 태양 혹은 달의 빛으로 등장하며 하늘, 곧 우목민족의 절대신 텡그리와 연관되어 신성성과 권위를 나타낸다. 카자흐족 설화의 예문에서 비록 치녀가 햇빛으로 인해 잉태하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이 낮이므로 ‘텡그리의 눈길’이라는 표현은 햇빛을 의미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³²⁾

그 외에도 번개, 안개 같은 자연 현상 또한 잉태의 매개체로 나타나기도

29) 한국구비문학대계, 2-1, 1980, 272-273쪽.

30)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1984, 206쪽.

31) <http://www.ertegi.ru> Легенда о происхождении казахов: Увидев вокруг себя огромный мир, девушка тут же лишилась чувств. И пока она лежала без сознания, на нее упал взгляд бога Неба Тенгри, и девушка забеременела. (검색일: 2019.03.11.)

32) 햇빛과의 교감으로 인한 잉태 모티브가 나타나는 위의 두 예문은 아르코스의 왕녀 다나에가 밀실에 갇혀 있을 때 제우스가 황금의 비로 변신하여 내림으로써 다나에를 임신시켰다고 하는 그리스 신화를 상기시킨다.

한다.³³⁾

신라, 신라, 아, 시대에 그, 이, 이광옥(李光玉)라는 분이셨는데, 한림학사(翰林學士)예요, 벼슬이 그 양반이. <…> 예향이라는 그 따님이 <…> 거기 화왕산에 가서 목욕재계를 했는데. 허는 도중에 예, 그 운무(雲霧), 그러니까 **안개**가 뽀얗게 기낭(그냥), 끼, 꺾어요, 안개가. 끼더니 기낭 황홀새{황홀한 사이}에 그냥, 정신을 잃어드렸는데{잃었었는데}. <…> 그래서 태기가 있어 가지고, 그, 애, 애기를 낳는데, 그 남아, 남자애 낳거든요.³⁴⁾

술레 타르한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순 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 <…> 샤먼들이 큰 소리로 굿을 하니, 그 소리가 포효하는 **천둥**의 선조에게까지 다다랐다. 굿이 끝날쯤에 번개 같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노인과 노파에게로 들어갔다(각각에게 불이 하나씩). <…> 샤먼들이 일어나서 말하길: «우리는 내리 치는 천둥과 유유히 떠다니는 구름의 근원으로부터 남자아이 두 명의 혼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 몸속에 깃들게 했다»³⁵⁾

번개, 천둥, 안개는 각각 빛의 속성과 물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의미상으로 태양, 물과 동일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성생식 모티브는 인간의 자연순배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는 모티브이다. 이 모티브가 있는 설화들을 살펴보면 숭배대상

33) 슬라브 신화와 게르만 신화에서는 번개를 최고신(페룬, 토르 또는 소르)으로 지정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서는 최고신인 제우스가 사용하는 무기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통해 번개 또한 천상의 빛의 일종으로 태양, 달과 함께 숭배의 대상으로 상정한 고대인의 관념을 알 수 있다. 이런 신성한 번개와의 감응으로 인해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34) https://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2_27_FOT_20100126_KHS_JNH_0001&dbkind=2&highlight (검색일: 2019.04.13.)

35) 『Якутские мифы』, Наука, 2004, pp.279-280: Столз Тархан, хотя и был женатым, до шестидесяти лет не имел детей. <…> Шаманы, шумно камлая, дошли до предка грохочущего грома. К концу камлания спустились сверху огни, вроде молнии, и вселились в старика и старуху (в каждого по одному огню). <…> Шаманы встали и сказали: «Мы принесли от начала разящего грома и плавающего облака души двух детей-мальчиков и вселили их в вас. <…>».

물은 초자연화되거나 의인화 되었으며 인간의 잉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존재로까지 형상화되었다. 이는 자연이 인간생활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양성생식

1) 인간과 신의 교합

서로 다른 류의 존재들이 성적 접촉을 통하여 아이를 잉태, 출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인간이 신성한 존재와 교구의 결과 초자연적인 탄생을 통해 그의 능력을 갖춘 인간이 출생하는 신성한 이야기의 근간을 이룬다. 인간과 관계하는 존재로는 신이나 토렘 동물 또는 숭배하는 동물을 들 수 있다. 이런 결합에 의한 탄생은 한국과 튀르크를 비롯 전 세계의 각 민족 신화에서 전승된 범세계적인 모티브로써, 주로 시조설화나 민족기원설화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의 민족이나 부족이 신성한 혈통임을 강조함으로써 타민족들과 차이를 두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과 신의 교구³⁶⁾, 인간과 동물 교구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작제건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용맹스러웠다. <...> 용왕이 몹시 기뻐하며 <...> 자신의 딸 용녀를 아내로 주었다. <...> 용녀를 원창왕후로 추존했다. 원창왕후는 네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을 용건이라 했다³⁷⁾; 제 30대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못 속의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던 것이다.³⁸⁾

36) 일부 이류교구담 관련 논문에서는 용과의 교구로 인한 탄생모티브를 동물과의 교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민속에서 용은 수신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논자는 인간과 신의 교구로 분류하고자 한다.

37) [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bookId=%EA%B3%A0%EB%A0%A4%EC%84%B8%EA%B3%84&types=r#detail/kr_\\$\\$02r_0060](http://db.history.go.kr/KOREA/item/level.do?itemId=kr&bookId=%EA%B3%A0%EB%A0%A4%EC%84%B8%EA%B3%84&types=r#detail/kr_$$02r_0060) (검색일: 2019.04.29.)

38) 일연, 『삼국유사』, 박성규 역, 서경시학, 2010, 170쪽.

어느 날 노인이 어딘가로 가서 노파가 혼자 잠을 잤었다. 노파가 밤에 갑자기 잠이 깬데, 침대에 자기와 함께 누군가가 같이 누워있음을 느꼈다. <...>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신을 신으면서 말했다 «나는 **유룬 그 아이이이이(천계 최고신, 우주창조신-논자 주)의 아들**이다. 너는 눈과 몸이 소금같이 하얀 남자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는 실패하거나 급작스럽게 죽는 일도 없을 것이며 행복하고 부유한 생을 영위할 것이다. 브이이앙나아호-브이아아(재주가 많은 브이아아)라고 이름을 지어라»³⁹⁾; 아바 우을 디오호호는 모루크 씨족의 시조다. 그는 지상의 여인과 **천상의 청년**인 아바아스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천상의 젊은이들과 경쟁하였다.⁴⁰⁾

한국 설화에는 튀르크계 민족들의 설화에서와는 달리 용으로 대표되는 수신과의 교구로 인한 탄생이 나타난다. 김종대는 작제건과 무왕의 탄생이 용과 인간의 교구에 의한 것으로 그려지는 것은 농경 중심의 경제활동을 영위했던 시기에 피지배계층에게 자신이 생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⁴¹⁾. 튀르크계 민족 설화에서는 수신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수렵경제에 바탕을 둔 민족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용신과의 교구 설화 전통은 후에 지렁이와의 교구로 변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신화의 탈신성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런 신화는 점차적으로 민담, 전설로 변형된다.

39) 『Якутские мифы』, Наука, 2004, p.269: Однажды старик куда-то отлучился, старуха ночевала одна. Ночью вдруг она проснулась и заметила у себя на постели человека, лежащего вместе с ней; глаза и тело у него были белые, как соль, бедра и голени были подобны только что очищенным от коры обрубкам бревна, ощущение его тела было приятное. Затем поднялся с постели и, сидя, стал обуваться. При этом он будто бы сказал: «Я — сын Юрюнг-Айыы. Ты родишь от меня ребенка мужского пола с белыми, как соль, глазами и телом; он будет человеком, не знающим неудачи и случайной гибели, счастливым и богатым. Назовите его Быйангнаах-Быйаа (изобильно одаренный Быйаа)».

40) 『Якутские мифы』, Наука, 2004, p.278: Предком морукского рода мегинцев являлся Аба Уол Дьоххо. Он родился от связи земной женщины с парнем абаасы Верхнего мира и состязался с парнями Верхнего [мира].

41) 김종대, 「왕의 탄생과 관련한 이물교혼담에서의 동물 상징성 고찰」, 『우리문화연구』 23집, 2008, 78쪽.

2) 인간과 동물의 교구

인간과 동물간의 교구로 인한 초자연적 탄생 모티브는 토렘조상관념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있다. 고대인들은 동물을 원초적으로 성스럽고 강한 힘을 지닌 존재들로써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같이 생활함으로써 인간과 여러 특징들을 공유한다고 믿었다. 동물의 내면이 인간과 같다고 하는 동질성의 세계인식에 대해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동방 고대의 민족 간에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같은 것이요, 거죽에 뒤집어쓰는 껍질이 혹은 털가죽 혹은 날개죽기 혹은 사람의 가죽처럼 서로 같지 아니라 뿐 제각기 저희 국토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 국토에서 우리사람과 한가지의 생활을 하고 다만 인간으로 나올 때는 금수(禽獸)충어(蟲魚)가 다 제 허물을 뒤집어썼다가 다시 저희 고장으로 돌아가면 일시의 가장(假裝)을 벗어 버리고 도로 사람의 형상으로 지낸다 하는 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저희 고향으로부터 잠시 놀러 온 손님이요 그 형상과 껍껍질은 곧 나들이 별로 입고 온 복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⁴²⁾ 이에 반해 김정신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숭배와 인간과 동물의 동일화 관념이 반복되어 동물과 인간 사이에 내적 동질성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인간과 동물은 혈연관계를 맺게 되고 동물이 인간이나 집단의 조상으로 관념화된다고 보았다.⁴³⁾

인간과 동물간의 교구 모티브의 연원은 수렵문화의 동물조상관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신성한 동물은 쉽게 멸하지 않고 영속성과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이물교구라는 특수한 이야기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원시인들의 최대 소망인 풍요에 대한 희구가 자연물과의 결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토렘은 생존환경 속에서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동식물이다. 그러므로 교구의 대상이 되는 동물은 민족들마다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한민족과 튀르크계 민족의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과 교구하는 동물로는 우선 새를

42) 최남선, 『조선의 신화와 설화』, 흥성사, 1983, 73쪽.

43) 김정신, 위의 책, 1994, 34쪽 재인용.

들 수 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있는데 과부로 살든 갑디다. 사는데 과부가 저녁으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서 뭐 소, 뭐 간치같이 뭇 새가 날아와서는 겁탈을
했어. 근디 그 그날부터서 인자 태기가 있어. 인제 게 열 달이 되게 결국
난 것이 아들을 낳어.⁴⁴⁾

<...> 그래서 왕자는 광야에 버려졌는데, 그 광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호수가 있었다. 버려진 아이에게로 백조 40마리가 날아와서
40명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봐주
었다. <...> 그들과 사랑에 빠져서 그들에게서부터 키르기스 민족이 탄생
하였다.⁴⁵⁾

새가 동물시조 신으로 등장하는 것은 새 토렘승배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에 고대인들은 새를 천
신과 인간의 매개체로 인식하였고, 그로인해 오래 전부터 신성의 대상이 되
었다. 알타이 민족들의 신화에서 새는 천신이나 신의 대리자, 천지창조자나
인류의 시조로 나타난다.⁴⁶⁾ 동이(東夷) 민족의 주신(主神)인 예가 하늘에 뜬
10개의 태양으로 인한 불별더위로 백성이 죽어가자 천제의 명을 받아 9개
의 태양을 화살로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9마리의 삼족오였다는 내용이 중국
의 『산해경(山海經)』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을 포함한 동북지역
의 민족에게는 새와 태양이 동일한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 한국구비문학대계, 5-7, 1987, 132쪽.

45) 『Легенды и сказк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обранные графом А.П. Беннигсен』, тип. А.С. Суворина, 1912, p.3: <...> и царевича бросили в пустыне, недалеко от большого озера. К брошенному ребенку, когда он остался один, прилетело 40 белых гусей, которые обратились в 40 прелестных девиц. Они взяли мальчика к себе и стали заботиться о нем. У них царевич рос не по дням, а по часам и скоро стал красивым, видным мужчиной. Его же приемные матери к тому времени нисколько не состарились и были так же прелестны, как и раньше. Царевич влюбился в каждую из них, и от него и от них произошел киргизский народ. Киргизы зовут себя Кыргыз-Казах, т.е. Кэрэк-Кыз-Каз-Ак, что значит 40 девиц гусей белых.

46) 박시인, 『알타이 신화』, 삼중당, 1980, 980쪽.

그 외에도 곰과의 교구로 인한 탄생 모티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곰이, 여자, 여자곰이구.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는데, 곰이 깨어가주구 어? 곰한테 인제, 곰이 못 가게 저 그, 남자를, 곰굴에다가 가둬놓구. <...> 곰이 새끼를 냈대, 냈다, 냈대요. 그, 사람 새끼지 말하자른.⁴⁷⁾

그녀(노파)는 길을 잃게 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데도 계속 헤매다가 겨우 곰 굴에 들어갔다. 그녀가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곰이 그녀를 잡아챘다. 곰은 그녀에게 음식과 물을 주긴 했지만 집에 보내주지는 않았다. 노파는 곰과 함께 이 굴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의 귀는 컸다.⁴⁸⁾; <...> 그녀는 놀라서 숲 어딘가로 도망쳤다. 곰이 그녀를 잡아서 동굴로 데리고 가서 부인으로 삼았다. <...> 남동생은 곰을 죽이고 누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 누나의 몸은 온통 털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도 온몸에 털이 무성하게 나 있었다.⁴⁹⁾

한국 설화에서는 인간남자와 암곰의 교구가 이루어지는 설화가 자주 발견되고, 튀르크계 설화에서는 인간여자와 수곰의 교구가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가 인간이고 그 부계가 이루어는 것은 모계제도가 상재한 고대 사회일

47) https://gubi.aks.ac.kr/web/VolView2.asp?datacode=02_04_FOT_20130125_KJO_ANC_0001&dbkind=2&highlight (검색일:2019.04.21.)

48) 『Башкирские богатырские сказки』, Башк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1, p.152: Она заблудилась. Долго блуждала в непроглядной мгле, пока наконец не угодила нечаянно в медвежью берлогу. Только старуха вошла туда, ее схватил медведь. Накормил, напоил, но домой не отпустил. Долго жила старуха в берлоге с медведем. Родился там у нее сын. У мальчика были большие ушики.

49) 『Якутские мифы』, Наука, 2004, p.246: В древности в Юрюнгейском наслеге Момского района одна семья имела двух дочерей. В то время люди съедали своих дочере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ъели одну из девушек, другая подумала: «Все равно меня съедят», — испугалась и убежала в лес, неведомо куда. Ее поймал медведь, поселил в берлогу и сделал своей женой. Медведь зимой вместо пищи давал этой женщине лизать свою лапу. Летом же кормил ее тем, что добывал охотой. Однажды младший брат девушки обнаружил ее следы и по ним нашел берлогу, в которой находились медведь и женщина. Он убил медведя, а сестру привел с собой. Сестра его, оказывается, вся обросла волосами. У нее родился ребенок, обросший волосами. С той поры люди из Юрюнгейского наслега поклоняются медведю. Люди Юрюнгейского наслега медвежину не едят, на медвежьей шкуре не спят.

수록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들 설화가 형성된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두 민족 설화에서 곰의 성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흥미롭다 하겠다. 김종대는 수곰은 주로 수렵문화에 기반을 둔 민족 설화에서 나타나는 데, 한국 설화에서 곰이 여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단군 신화의 웅녀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곰이 여성으로 상징된 것은 환웅이라는 신의 성별이 남성으로 정해졌기 때문으로 보았다. 환웅과 대응할만한 문화적 짝으로 곰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성별이 여성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이 풍요로운 수확의 기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산성을 대표하는 존재임을 들어 웅녀는 곰으로 표상되기는 하지만 생산능력을 갖춘 여성신의 상징으로써, 수렵문화에서 농경문화로 전이되는 과도기적 표현으로 이해하였다.⁵⁰⁾

한국 설화에서만 나타나는 이류교구의 존재로는 돼지를 들 수 있다. 주로 최치원의 탄생과 연관된 설화들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돼지는 일반적인 돼지가 아니라 황금돼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오래 산 돼지로 형상화하여 그 신성성을 배가시켰다.

인제 **금도지(금돼지)**라, 그것이 되야지요. 되야지가 조화를 부러가
지고 그 월님 마누라만 데려가다가 인제 살고, <...> 그 부인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열 두 달 만에 참 생산을 했어. 아들을 낳다 그 말이야.⁵¹⁾

이만열은 우리나라에서의 돼지 토템의 흔적을 부여의 마(馬), 우(牛), 저(豬), 구(狗)라는 부족명에서 찾았다. 그는 이 동물 이름이 단순히 동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부족과 구별하기 위한 토템조직의 이름으로 보았다.⁵²⁾ 돼지는 초기 수렵시대부터 숭배의 대상이었고, 부여가 지리상 북방 수렵사회의 토테미즘 문화를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부여에 돼지토템 관념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수렵문화

50) 김종대, 「왕의 탄생과 관련한 이물교혼담에서의 동물 상징성 고찰」, 『우리문화연구』 23집, 2008, 67-94쪽.

51) 한국구비문학대계, 1-1, 1980, 115쪽.

52) 이만열, 「한국고대에 있어서 토테미즘적 요소」, 『이해남박사 화갑기념논총』, 1970, 5-6쪽.

가 발달한 튀르크계 민족들에게서 돼지토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흥미롭다 하겠다. 칭기즈칸의 아들이 고비(사막)에서 돼지와 같이 살면서 아들을 많이 낳았고, 이들로부터 키르기즈 민족이 생겨났다는 몽골계 키르기즈족의 시조신화⁵³⁾가 있는데, 이는 고대 튀르크계 민족들도 돼지를 토텐으로 여겼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튀르크계 민족들의 전통에서 돼지토텐의 흔적이 사라지게 된 것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튀르크계 민족 설화에서 볼 수 없는 이류교구의 존재로 지령이가 있다. 지령이와 인간여자와의 교구로 인한 탄생 모티브가 나타난 대표적인 설화로는 견훤 설화를 들 수 있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 광주 북촌에 한 부자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용모가 단정하였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매일 자색 옷을 입은 남자가 와서 같이 잡자리를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가 바늘에 긴 실을 꿰어 그의 옷이 찢러 놓아라.” <…> 바늘은 큰 **지령이**의 허리에 찢러 있었다. 이 때문에 임신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열 다섯 살에 자칭 견훤이라고 하였다. ⁵⁴⁾

지령이는 용과 함께 수성 지향의 동물로써 농경사회의 풍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가뭄이 심하여 기우제를 지낼 때 지령이에게도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⁵⁵⁾ 지령이를 토룡이라 칭하고 그에게 제물을 바쳤다는 것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지령이는 농경문화적인 생활양식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서 대두된 것으로 유목경

53) 변지선, 「이류교구설화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51쪽 재인용.

54) 일연, 『삼국유사』, 박성규 역, 서정시학, 2010, 173쪽.

55)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10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지 벌써 10일이 되었사오니, 전하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백악(白岳), 목명(木覓), 남교(南郊), 북교(北郊)에 벌써 비를 빌었으니, 지금은 마땅히 종묘(宗廟), 사직(社稷), 토룡(土龍)에 비를 빌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 우선 종묘, 사직과 토룡에 정결하게 제물을 드리고 기우제를 행함이 좋겠다.’ 하였다. 증보판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제1집, 서울시스템(주) 한국학데이터베이스연구소, 1995-1997. 김태희, 「이물감응탄생설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0쪽 재인용.

제 생활을 한 튀르크계 민족의 설화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튀르크계 민족들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로는 이리를 들 수 있다. 이리가 조상신으로 나타나는 설화나 종족의 수호자로서 등장하는 설화들이 널리 구전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설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돌궐(튀르크) 민족설화: 돌궐은 흉노의 일파로 그 성이 아사나(阿史那)이다. 돌궐은 독립된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 인접 국가의 공격을 받아 전 부족이 몰살당하였는데 열 살 난 남자아이만 살아남았다. 병사가 이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다리를 잘라 눈에 버렸다. 이 남자아이를 **이리**가 먹여 길렀다. 그 소년이 장성하여 이리와 합하여 이리가 잉태하게 되었다. <...> 이리는 그 동굴에서 열 명의 아들을 낳았다. 열명의 아들이 장성하여 각각 아내를 취하여 각각 성을 취하였는데, 아사나(阿史那)는 그 중의 한 성이다.⁵⁶⁾

야쿠트 민족설화: 베툼인들의 선조들이 바람으로 인해 강 위에 떠있는 섬에 갇히게 되었는데, 음식을 먹기 못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근데, **이리**가 숨겨둔 음식을 먹고 살아났지. 이리는 국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뿌리를 뽑아내고 그 구멍이에 물고기를 삭히려고 넣어뒀었어. 베툼인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난 거야. 그래서 이리가 그들을 살려준 거라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리를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는 거지.⁵⁷⁾

특히 바쉬키르족은 이리를 뜻하는 단어를 직접 종족명에 사용함으로써 자신들과 이리의 연관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바쉬코르트’라는

56) 김효정, 「돌궐족의 기원신화에 나타난 이리 모티브 소고」, 『한국중동학회논총』 22권 2호, 2001, 246-247쪽 재인용.

57) 『Якутские мифы』, Наука, 2004, p.249: В старину жителей Бетонского наслега Намского района дразнили: «Бетонцы-волки, имеющие божеством волка, семь раз обезжавшего пустую яму». Он вот за что стал их божеством. Предки бегюнцев, когда застряли из-за ветра на речном острове, заголодали, стали помирать, но спаслись тем, что нашли волчьи запасы. Он завкасил рыбу в яме, натаскал коренья, пригодные для похлебки, вот этим бетонцы прокормились в то время и остались в живых. Поэтому признали волка своим божеством, полагая, что он их спас.

종족명은 바쉬코르트어로 ‘머리, 우두머리’를 뜻하는 단어 ‘바쉬(Баш Bash)’와 ‘이리’를 뜻하는 단어 ‘코르트(корт Kort)’라 합쳐진 것이다. 바쉬키르족이 콥착 그룹의 튀르크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을 묘사한 설화에서도 이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옛날 극동의 어느 높고 눈 덮인 산들이 있는 지역에서 비롯된 바쉬키르족, 노가이족, 카자흐족, 키르기즈족 등이 함께 살고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 부족들은 바쉬키르족, 노가이족, 카자흐족, 키르기즈족 등과 같은 구분은 아직 없었다. 어느 날 이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하루는 이 종족의 지도자가 사냥을 하러 가는데 한 이리가 나타났다. 그 지도자가 이리를 따라 가다 보니 천국과 같이 좋은 숲과 강이 있는 굉장히 큰 산에 이르렀다.⁵⁸⁾

그러므로 바쉬키르족의 설화에서 이런 이리와 여인의 교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옛날 옛날에 한 도시에 왕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17살의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다. <...> 어느 날 딸이 시녀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다. 이리는 왕녀를 자기 목에 얹어 담장을 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리는 빨리 왕녀를 어떤 산기슭으로 데리고 갔다. 이리가 몸을 부르르 떨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동으로 변하였다 <...> 그들은 그 동굴에서 단둘이 지냈다. <...> 한 달이, 그리고 또 다시 한 달이 지나고 왕녀는 태기를 느꼈다. <...> 그녀는 이리 남편의 아들을 낳았다.⁵⁹⁾

58) 김효정, 위의 책, 249쪽 재인용.

59) 『Башкирские богатырские сказки』, Башк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1 p.141: В давние-давние времена в одном городе жил, говорят, царь. Бал у него всего-навсего одна-единственная красавица дочь семнадцати лет. <...> Однажды, когда она со своей служанкой гуляла в саду, через забор неожиданно перемахнул волк. Подскочил к ним, закинул себе за шею царевну, перепрыгнул с ней обратно через ограду и понесся неведомо куда. Быстро домчал волк царевну к подножию какой-то горы. Встряхнулся и тут же обернулся джигитом, равного которому покрасоте не было на свете <...> Остались они в этой пещере вдвоем. <...> Прошел месяц, минул другой, и вот почувствовала себя царевна

그 외에도 비록 잉태에 관한 모티브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는 이리에 관한 카자흐족의 설화도 존재한다.

그들은 다시 이리를 쫓기 시작하였고, 아르사칼의 아들이 또 제일 먼저 이리를 잡았다. 그가 손을 위로 올리자 이리가 소리질렀다: 나를 죽이지 마! 너에게 아름다운 내 동생을 줄게 <...> 목동이 손을 치워! 겁나지 않으면 나랑 같이 아름다운 내 여동생을 데리러 가자 <...> 목동은 이리와 함께 갔다. <...> 하얀 암이리가 가죽을 벗자 목동은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다.⁶⁰⁾

위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두 민족들의 설화에서는 동물 토tem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기는 하나 그 신성성이 거의 사라졌다. 곰이나 돼지, 지렁이와의 교구로 인해 태어난 인물은 커서 비범한 인물이 되긴 하나 동물은 이미 퇴치하거나 떼어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동물이 신성한 존재로서 숭배되었던 시기는 인간이 자연계에 의존도가 높았던 때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게 되자 동물에게 부여했던 신성성이 사라지게 되고 이런 동물은 더 이상 교구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인간과 교구 상대와의 갈등이나 대립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세계관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사고와 사회가 문화화되면서 자연의 신성함이 점차적으로 부정되었으며, 따라서 자연과의 교구에 의해 탄생은 주인공의 비범함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기에 형성된 인류교구설화(또는 야자래설화)는 자연의 상태에서 문화의 세계로 진전하는 고대인의 세계관의 변화가 함축되어 있다.

беременной. <...> Между тем у нее родился сын от первого мужа-волка.

60) <http://maxima-library.org>, 『Казах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Джигит и волчица』: Снова они бросились в погону за волком, и снова первым настиг его сын аксакала. Размахнулся он, а волк крикнул: — Не убивай! Отдам за тебя свою сестру-красавицу. <...> — Убери, джигит, руку. Если не трусишь, пойдем ко мне за красавицей-сестрой. <...> джигит отправился вместе с волком. <...> Тут белая волчица сбросила с себя волчью шкуру, и джигит увидел девушку необыкновенной красоты. (검색일: 2019.02.27.)

III. 나가는 말

설화는 각 민족의 조상들이 향유했던 고대 전통과 관습 및 민족 정서가 녹아있는 것으로 설화에 등장하는 모티브들은 그 종족 고유의 원시 사고와 세계관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한민족과 튀르크계의 여러 민족들의 설화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초자연적 탄생모티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볼 때 그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여러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두 민족은 식물의 생산력, 수태력에 대한 관념을 지니고 있으며 수목 숭배가 있었다. 그리고 두 민족 모두 천신숭배사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신이 해 혹은 달의 빛으로, 또는 직접 내려와 인간과 결합해서 민족시조가 출생했다는 것으로써 천신숭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설화에서는 인간과 천신 또는 수신과의 교구 모티브가 존재하는 반면에 튀르크계 민족의 설화에서는 인간과 천신과의 교구 모티브만이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 수신과의 교구 모티브의 존재 여부는 두 민족이 영위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특수성에 의한 것으로, 한민족에게만 수신과의 교구가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유목경제가 아니라 물이 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농경사회경제체제를 영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또한 두 민족은 동물숭배사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동물숭배의 양상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민족에서는 새, 물고기, 곰, 돼지, 지렁이가, 튀르크 민족에서는 새, 물고기, 곰, 늑대로 그 숭배동물이 약간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각 민족이 처한 자연적, 민족적, 종교적 환경에 따라 그 숭배대상이 달리 설정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과 비인간류 존재와의 교구(직접적이든 상징적이든 상관없이)로 인한 잉태는 인간의 잉태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고대인의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원시인들은 임신의 생리적 조건에 대한 지식의 보유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신비한 힘의 세계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라는 레비-브뤼엘⁶¹⁾의 말처럼 고대인들은 경외의 대상인 자연물과의 혈연

관계를 통해 그 동물의 능력을 분유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고자 하였으며, 그 바람이 이류교구설화가 발생하는데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바로 그런 이유로 한민족 설화와 튀르크계 민족 설화에 등장하는 초자연적 탄생에 관련한 자연물들이 유사하였을 것이다.

61) 레비-브뤼엘(Lucien Levy-Bruhl), 『원시인의 정신세계(La Mentalité Primitive)』, 김종우 역, 나남, 2011, 597쪽.

■ 참고문헌

- 강진옥, 「구전설화의 이류교혼 모티브 연구」, 『이화어문논집』 11집, 1990.
- 김정신, 『이류교혼설화연구: 인수혼 모티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중대, 「왕의 탄생과 관련한 이물교혼담에서의 동물 상징성 고찰」, 『우리 문학연구』 23집, 2008.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 김태희, 「이물감응탄생설화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효정, 「튀르크족 기록에 나타난 ‘탱그리’의 의미」, 『한국중앙학회』, 2007, 387-406쪽.
- 김효정, 「돌궐족의 기원신화에 나타난 이리 모티브 소고」, 『한국중동학회논총』 22권 2호, 2001.
- 라인정, 「이물교구설화의 용어 정립과 유형 분류」, 『어문연구』 29권, 1997.
- 레비-브뤼, 『원시인의 정신세계(La Mentalité Primitive)』, 김종우 역, 나남, 2011.
- 말리노프스키 B., 『Sex and Repression in Savage Society, 미개사회의 성과 억압』, 한원상 역, 삼성출판사, 1977.
- 박시인, 『알타이 신화』, 삼중당, 1980.
- 변지선, 「이류교구설화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블라지미르 프롭, 『구전문학과 현실』, 박전열 역, 교문사, 1990.
- 이만열, 「한국고대에 있어서 토테미즘적 요소」, 『이해남박사 화갑기념논총』, 1970.
- 일연, 『해설삼국유사』, 박성규 역, 서정시학, 2010.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황금가지』 제1권, 박규태 역, 을유문화사, 2005.
- 최남선, 『조선의 신화와 설화』, 흥성사, 1983.
- 한국구비문학대계,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구비문학대계,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구비문학대계, 5-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구비문학대계, 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 한국구비문학대계, 8-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Башкирские богатырские сказки』, Башкирское книж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81.

『Башкир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Башгосиздат, 1941.

Жирмунский В.М., 『Тюркский героический эпос』, Наука, 1974.

『Казах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Жазушы, 1980.

『Легенды и сказк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обранные графом А.П. Беннигсен』, тип.
А.С. Суворина, 1912.

『Якутские мифы』, Наука, 2004.

<http://www.ertegi.ru> (검색일: 2018.12.14.)

<https://gubi.aks.ac.kr/web/TitleList.asp> (검색일: 2018.12.14.)

<http://maxima-library.org> (검색일: 2019.01.18.)

❖ ABSTRACT

A Study on the Motif of Supernatural Birth: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Turkic Folk Tales

Lee, Jae-jung

Ancient people regarded nature as a holy entity, manifesting mystical power. At the same time, nature was a realm, that shared similar status with humans. So, ancient people perceived that humans could acquire mystical powers, through interacting with nature. This is well-shown in heroic folk tales. In general, a hero is portrayed as an offspring of nature and a human. This type of story line is often found in folk tales of many ethnic groups across the globe, and have been perpetuated through generations.

As such, this article investigated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bove-mentioned motif, by analyzing heroic folk tales of Korean and the Turkic people (Kazakhs, Yakuts, and Bashkirs), who live in the Eurasian region. Throughout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 number of similarities, despite minor differences to meanings, exist between Korean and Turkic folk tales. First, both groups worshipped trees, and shared a common belief, that plants have the power of fertility and fecundity. Additionally, worshiping of a heavenly god is also portrayed in both folk tales. The heavenly god descends to Earth disguised as sunlight or moonlight, to conjoin with a human. As a result, heroes are born. In Korean folk tales, humans conjoin with the god of heaven, or the god of water. However, in Turkic folk tales, humans conjoin only with the god of heaven. Also, animal worshiping is also a common feature found in Korean and Turkic folk tales. However, there exist differences in certain aspects. Such difference may have evolved as a result of different socio-economic systems that Koreans and the Turkic people relied upon. As for Koreans who lived in an agrarian society, water was an integral source

of sustenance. Meanwhile, for Turkic people who relied on a nomadic economic system, water was not as integral as for Koreans.

Key Words : Motif of Supernatural Birth, Turkic Folk Tales, heroic folk tales, animal worship, totemism, Kazakhs, Yakuts, Bashkirs

■ 논문접수일 : 2019. 05. 10

■ 심사완료일 : 2019. 06. 01

■ 게재확정일 : 2019. 06. 04